

식약처, 식품 수출 활성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 EU, 영국, 미국 등으로 삼계탕을 수출하는 (주)마니커에프앤지 현장방문
- 국내 축산물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지원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용재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5월 9일 삼계탕 등을 EU 등에 수출하는 (주)마니커에프앤지*(경기도 용인시 소재)를 방문해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2024년 기준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등 161만 달러 수출

식약처는 그간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도입하여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규제*에 적극 대응한 결과, 2014년 미국에 삼계탕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캐나다, EU, 영국 등에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게 되었다.

*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실험실, 항생제 기준 규격, 이력추적 관리 등

김용재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삼계탕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며, “식약처는 업계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대만 등 14개국 19개 품목(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가공품 등)에 대한 수출 허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업계는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호 (주)마니커에프앤지 대표이사는 “식약처의 노력으로 삼계탕 등 K-FOOD의 위상이 높아지고 수출 활로가 넓어졌다”며, “업계도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발판 삼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 개발·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과 규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내 식품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호 (043-719-2170)
		담당자	사무관	안동성 (043-719-2169)

